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尹 “제 집무실 항상 열려있다”

국내외기업 CEO들과 오찬간담회

韓 기업 대표에 이재용 등 6명 참여
해외선 IBM·JP모건 회장 등 참석

尹 “다양한 경험·지혜 위기에 도움
안목있는 통찰·조언들도 큰 성과”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경제외교 행보에 적극 나섰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외곽의 한 호텔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대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글로벌기업에서는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몬 쉐링크 대표, 토시아키 히가시하라 히타치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대표, 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회장, 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회장,

패트릭 겔싱어 인텔 회장, 버나드 멘사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 와엘 사완 쉐라프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대표, 제임스 쿨터 TPG 공동 대표, 존 리아디 리포 카라와찌 대표, 빠뜨리 뿌요네 토탈 에너지 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찬에 앞서 자유롭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에게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라며 패트릭 겔싱어 인텔 CEO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 많지 않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CEO와 함께 “여기 아는 얼굴 한 분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웃으면서 칼둔 CEO와 포옹을 했다.

칼둔 CEO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 편히 계셨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대해 “UAE가 추구하는 특유의 투명성과 보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에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으로 산업화해서 풀어가려 한다.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가 “지금이 적기”라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으로 하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전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

응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뵈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만큼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로부터 안목 있는 통찰과 조언을 듣게 돼, 그게 두 번째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자주 뵈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세 번째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부산서 인류 공동위기 해결책 함께 모색”

尹대통령·김 여사 ‘한국의 밤’ 참석 “경제·산업·문화 강국, 경험 나누길”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8일(현지시간)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양극화 등 한 나라의 노력만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전략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여 년 전 우리는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런 우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

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역동성과 개방성으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열린 경제 강국, 반도체·배터리·미래차·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 강국, K-팝·영화·드라마·웹툰 등으로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의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문화 융합 도시”라며 “우리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대한상의, ‘한국의 밤’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표명

최태원 회장 등 정·재계 리더 자리 韓 문화 알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를 통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모인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개최후보지인 부산을 홍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자 대한상의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위원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다.

코리아 나이트는 글로벌 정·재계 리

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 기간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자리이다. 2018년 외교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개최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손경식 CJ 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등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이 함께

자리했다. 정부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특별참석자로 초청됐다.

올해 코리아 나이트에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가 풍성했다. 프랑스 문화 예술공로훈장인 오페시에상을 수상한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와 방송 복면가왕에서 우승을 다수 차지하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가수 ‘소향’ 씨가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참석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리아 나이트가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가 전세계로 전달되고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의는 한국 기업과 함께 엑스포 유치 활동

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치 과정에서 발굴된 세계 각국의 니즈가 한국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